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유 나¹⁾

조 한 익²⁾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며 살아가는 중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3명의 중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Clandinin & Connelly, 1985, 2000).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을 비롯하여 대화록과 연구자 저널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은 시간적, 공간적, 장소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따라서 탐색하였다.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참여자들이 풀어낸 내러티브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로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요약, 의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그리고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청학동 서당, 삶의 경험,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

*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유나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h1652@gnu.ac.kr)

I. 내러티브를 시작하며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청학동 서당에서의 경험에 대한 자전적인 내러티브로 시작한다.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연구자는 청학동 서당과 관련하여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과 내용, 특정한 관심과 그 관심의 근원을 성찰하고 이러한 경험이 본 연구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1. 연구자의 개인적 내러티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했던 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안쓰럽고 측은하기만 하였다. 부모님의 부재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러한 사정들은 머릿속으로만 이해되었을 뿐 온전히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가까운 형, 누나처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는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아이들 곁에 머물렀다.

2008년 겨울 청학동은 대학생이 된 나에게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유년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서당에서 단기간의 짧은 캠프생활을 경험했던 나의 즐거운 기억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을 곳곳의 서당들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갈 곳을 헤매고 있을 때, 길가의 산책로를 따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내려오던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이었던 나의 마음속 경계를 풀게 하고 따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주었다. 찬바람이 일 굴 곳곳에 서려 두 불은 발갛고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방학이 되면 나의 발걸음을 서당으로 향하게 하였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학기 중에 아이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번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서당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서당에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은 종종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사소하게는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친구, 가족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서당에 오게 된 계기들은 다양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항상 집에 홀로 남아 있어 서당에 온 아이도 있었고, 도시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또래의 친구들과 비행을 저질러서 서당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서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생활한 아이들은 서당이 마치 집과 같은 의미가 되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선한 인상을 주었지만, 서당에 처음 와서 이제 막 적응을 시작한 아이들은 대부분 불안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아무 곳에도 받아주지 않아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부모의 강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당에 온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비행문제로 서당에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종종 서당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서당에 왔을 것이고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도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몇 해가 흐른 뒤 대학을 졸업한 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청학동 며느리가 되어 서당의 구성원이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서당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고 산중에서 사는 삶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서당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학 시절과는 달리 사생활 없이 매일 학생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서당은 비단 교육기관으로 써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써의 역할까지 함께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들의 부모인 양 살뜰히 아이들을 챙기고 보살펴야 했다.

청학동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왔지만 그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도 많다.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학교에 보내는 나에게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가시 돌친 말부터 시작해서 왜 학업성적이 떨어졌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식을 직접 키우지 못하고 청학동 서당

에 맡기면서 자식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모든 일을 청학동 서당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떤 때는 고민이 되기도 하였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울 점도 많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나 서당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노심초사하며 실제로 문제라도 생기면 발생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수습하느라 편안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다. 문제행동으로 인해 서당에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종종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일탈행동은 나에게 아찔한 경험을 가져다주었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다. 아마도 집과는 다른 분위기, 규칙과 규율, 새롭고 낯선 이들이 아이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일 것임이 분명하였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서당에 적응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마음 한편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늘 두려웠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선생님이라는 역할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최대한 아이들이 스스로 서당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일이었다. 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친구처럼 편안

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했고,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고민들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는 분명히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후에 아이들이 서당을 떠나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반듯한 아이로 성장해 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랐다. 이런 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았는지 아이들과 나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와 교류는 힘든 서당 생활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곁에서 관찰하여 알게 된다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 자신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깊이 있게 사고하여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렸을 때의 가정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청학동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적응은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 모습은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 학생들의 삶의 모습은 학생 개인의 삶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가정, 이웃,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어루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의 수저계급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저계급론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식에게는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도 부모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서울신문, 2019.11.25; 연합뉴스, 2015.11.17). 아이들도 가정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공립학교에서 비행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원인으로 적응이 힘들 경우 부모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전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부모갈등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 내의 구조적인 문제나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Fincham, Crych, & Osborne, 1994). 부모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을 대신하여 위탁할 곳을 찾아 자녀를 보내고 경제적인 면에 힘을 쏟는다(한국일보, 2019.07.06). 이러한 가정의 경우 자녀는 자신을 대신 양육하고 보살피는 곳에 가게 되며 부모는 따로 살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특성이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에 수용 또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모선, 2018; Laird, Petti, Dodge, & Bates, 1999). 학교 부적응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촉발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불안감,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비롯하여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역시 학교 환경요인(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10; Crystal et al., 1994)으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학교 부적응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이게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정적인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유로 서당을 찾아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서당은 과거 전통 서당교육의 명맥을 이어받아 서당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공교육을 병행해 훈육과 예법을 통한 인성·예절교육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당은 전통적인 교육이념 아래 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해 매체로부터의 차단 및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과 인성과 예를 중시하는 서당교육의 특수한 이점 때문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당에 거주하며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 중·소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곽재용, 2010).

서당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며, 학생들의 자율성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서당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과 학교에서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해나가는가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그동안 이루어진 서당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시대별에 따른 전통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나(김태환, 2004; 정찬호, 2017), 전통 서당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연구(곽민희, 2010; 정수령, 2002) 혹은 전통적인 서당교육과 현대적 교육을 연계한 연구(서석훈, 2009; 원준수, 2012) 등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서당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행이나 학교부적응 또는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의 서당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와 분거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므로 서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나가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정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부모를 비롯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사회적 발달과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족과 분리되어 서당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지만 이 경험들은 가족과 관련된 경험, 사회와 관련된 경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와 더불어 아픔을 갖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nnelly와 Clandinin (1990, 2000)이 개념화한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의하면 내러티브를 탐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삶의 형태이며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풀어내고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학생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들과 고민들은 어떠한 것들이고 서당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청학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어

떠한가?

둘째,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Denzin & Lincoln, 2018; Patton, 1990).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경우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방향이 어떤 참여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 있어 라포 형성의 수준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는 곧 연구 과정에 직결되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 된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 둘째, 서당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셋째, 내러티브 탐구에 필요한 장기적인 면담이 가능한 청소년, 넷째,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다. 청학동 서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분포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서당에서의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가명)	성별	연령	가족형태	입소배경	거주기간
김선두	남	16	재혼가정	가정불화	7년
나배려	남	16	한부모가정	비행문제	3년
강태풍	남	15	재혼가정	학교부적응	4년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 언어적인 표현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적인 특성상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장기적인 면담을 진행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를 승낙한 총 3명의 중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수행절차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청학동 서당의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인성·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서당 근처의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모두 끝마친 후에야 서당으로 귀가한다. 공교육과 서당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서당 내에서 학과 공부를 비롯하여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과 같은 한문학습과 기본적인 예절교육, 서예, 유소년 축구교실, 독서나 기타 예체능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산에 인접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자연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외부로 나가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서

당에서 자유시간 및 개인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거나 명절 연휴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당으로 돌아오며, 부모님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휴가나 외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청학동 서당의 교육환경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한 지 8년차에 접어들었으며, 그간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하고 이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연구주제에 적합한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며 현장 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가정환경을 비롯한 서당환경, 생활환경 등 연구참여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서당의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유사하였으며, 이들은 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많고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청학동 서당에서의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들의 경험적 내러티브가 이후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할 당시 녹음에 대해 연구자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참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들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 작업 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3회에서 4회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회당 약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학동 서당 내 자율학습실을 사용하였으며, 주중 방과 후 오후 시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오전 시간에 규칙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는 자료를 의미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질문 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 가이드는 크게 청학동 서당 내에서의 경험과 서당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도 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 전체의 배경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이 전체의 맥락을 흐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와 같은 공간 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관계와 친밀감이 깊어 있게 형성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심도 있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면담이 진행된 후에는 면담에 대한 느낀 점이나 면담 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을 연구자 저널을 통해 작성하여 추후 면담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대화록을 비롯하여 그간 연구참여자들이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써온 일기와 그 밖의 가까이에서 참여자들을 관찰하며 적어온 현장 노트, 그리고 현장에서 관찰을 마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연구자 저널 등을 연구자료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총 150쪽의 분량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기록해온 일지 3권을 비롯하여 현장노트 1권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서당에서 생활하며 작성해온 일기 11권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의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대답이다(김영천, 2015;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는 자

표 2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과정

	김선두	나배려	강태풍
가정으로 부터의 독립	▪ 불안한 우리 집	▪ 어린 나이에 오게 된 서당	▪ 대안학교를 전전하다
서당에서의 경험과정	▪ 친구들이 불편함으로 다 가오던 순간 ▪ 나를 변화시킨 곳, 서당 ▪ 한없이 부족한 나 ▪ 풀리지 않는 가족	▪ 답답하지만 본심을 찾는 곳 ▪ 불편한 형, 철없는 동생, 제일 편한 친구들 ▪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 는 나 ▪ 무단이탈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 서당공부가 힘들어요 ▪ 시원한 바람, 밖으로의 외출 ▪ 소소한 일탈 ▪ 안도의 한숨

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상기하며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곧 내러티브의 분석과 다시 이야기의 의미를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과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선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절차에서 심층면담이나 대화의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과 저널을 되풀이하여 읽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와 문장, 구절들을 찾아내었다. 이런 단어와 문장, 구절들 가운데 연구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걸러내면서 유사하고 연관되는 문제와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시켜 나갔으며, 범주화된 내용들을 다시 읽어나가면서 공통된 주제로 통합하여 그 속에서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풀어낸 내러티브의 경험과정은 표 2와 같다.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학동

서당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단순히 시간의 배열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질문이 어떠한지 혹은 참여자들의 기분이나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 이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이 연구가 연구자를 비롯하여 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과 계속하여 마주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면서 필요한 연구자의 청학동 서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충분히 활용하여 내러티브 삼차원적 탐구공간에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였던 연구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연구참여자와 함께 읽어 보고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서당에서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현장에서의 참여 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연구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당과 연구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당이 장소적으로 동일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해 온 탓에 신뢰가 이미 깊이 있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에 있어 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면담이나 대화를 마치고 나면 그 즉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녹취된 대화 내용을 전사하고 반복하여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다시 재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의 내용에 관해 연구참여자들의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 작업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내러티브 탐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질적연구 전문가의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였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구방법이므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연구참여자의 ‘자기노출’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한 후 원치 않는 내용은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 대해 평생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서 윤리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Boykin & Schoenhofer, 1991),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GIRB-G18-Y-0023, 2018. 05. 11).

III.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개인적 내러티브

1. 김선두의 이야기

이야기 1: 불안한 우리 집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나이 터울이 많은 누나와 형이 있던 김선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가 많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어머니와 함께 살던 와중에 형과의 차별을 경험하고, 누나와 형의 일탈행동으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와해되면서 김선두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로 처음 서당에 오게 되었다. 가정에서 있을 때 항상 외롭고 힘들었다고 자주 이야기 하던 김선두는 불안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서당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2009년 유치원을 졸업함.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이 심해짐. 2010년 부부싸움에서 엄마가 3일 동안 집을 나감. 부부싸움이 더 심해져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함(이때의 시기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아닌가 싶음). 2011년 새엄마가 생김. 누나가 가출함. 2012년 새엄마가 나를 차별하고 형을 편애함. 새엄마가 완전 싫어짐. 친엄마가 완전 보고 싶어서 누나랑 몰래 찾아감(안 걸림). 형이 집을 나감. 가족의 분위기가 안 좋아짐. 2013년 3월 5일 서당에 입소함. 집에 있던 것보다 외롭지 않고 좋은 형 친구들과 놀아서 재미있었음. (2018. 07. 15. 김선두 연대기)

이야기 2: 친구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던 순간

활동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의 김선두

는 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느꼈던 감정과는 달리 처음 서당에서 지낼 때 친구들과의 생활은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다. 환경 특성상 단체 생활로 인해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과, 친구관계가 소원해지면 서당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홀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내재하였다.

친구들이랑 같이 자고 통학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게 제일 먼저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 어른들한테 못한 얘기도 친구들한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여기 다니면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럽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뭔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씻고 나온 것까지 보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것도 힘들었고. 학교에서 막 요즘 애들 편 나누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누구 누구 편 이러는데. 서당 애들끼리 갈리면 서당에서 혼자 따로따로 놀아야 되잖아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이야기 3: 나를 변화시킨 곳, 서당

김선두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시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좋은 성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곧 행복이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다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김선두는 부모님을 제외한 의미 있는 타인들과 함께 한 7년간의 오랜 서당 생활을 회상하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효도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서당에 오니까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생각이 좀 많았는데, 공부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고 나서는 사람 관계하고 효도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춘기를 여기서 보냈다는 게 제일 커요. 도시에서 그랬으면 사고 쳤을 수도 있고, 그냥 공부만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여기서 사춘기를 보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 면담)

훈장님은 학교 데려다줄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살짝 줄리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얘기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훈사님들은 고마운 것 같아요. 좋은 말도 해주시고.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상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어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서당에 온 게 잘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좋아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이야기 4: 한없이 부족한 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김선두는 자신은 장점이 없고 단점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다보니 전교생이 작은데 혼자 지내면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친구들 눈치를 봐야 되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으며, 남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힘들고 자신이 잘못하면 친구관계가 다 무너질 것 같아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였다. 김선두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동정해 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장점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장점 적기 그런 거 있잖아요? 단점은 막 수두룩하게 적는 데 장점은 한 번도 안 적었어요. 한 번도 적은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장점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저는 그냥 많이 모자란 애 같아요. 딴 사람이 다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칭찬해 주는 것도 뭔가 동정? 해주는 것 같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 면에서는 제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친해지는 걸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친해지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생각하다보면 조심스러워지고. 편하게 못 하겠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이야기 5: 풀리지 않는 가족에 대한 부분

김선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하였다.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엄마 품이 그렇다고도 하였고,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김선두에게는 늘 새어머니가 계셨고, 휴가나 명절에 마주하는 새어머니에게 적응해야 하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 아버지 몰래 누나와 형의 도움으로 친어머니와 재회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다. 김선두의 눈에 아버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친어머니의 모습은 아프고 힘들게 비취졌기 때문이다. 김선두에게 가족이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좋은 일이 뭐냐면 어제 칭찬왕이 돼서 겨울왕국 과자세트를 받아서 아주 기뻐고, 슬픈 일은 부원장님한테 여기서 속에 담아놓았던 일을 말씀드렸고 갑자기 친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 엄마 못 본 지가 3년쯤 되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도 엄마 생각이 난다. 그래도 새엄마와 아빠와 같이 사니까 괜찮다. 아빠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주에 오신다 하셨다. 기대된다. (2014. 12. 12. 김선두 일기)

지금도 아빠가 싫어요. 아빠는 새엄마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불편하고. 친엄마 기분이 어떨지 생각돼요. 아빠는 딴 여자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혼자서 청소하는 일하고 편찮으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를 이해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2. 나배려의 이야기

이야기 1: 어린 나이에 오게 된 서당

한 부모 가정인 나배려는 어머니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서당에 오게 되었다. 또 래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부끄러움이 많고 어리숙해서 서당의 형, 누나들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시 서당에 오게 되었다. 나배려가 서당에 재입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부분은 부모의 강요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해서 서당에 왔다는 점이다.

집행유엔가? 그거 1년 2개월인가 받고 진짜 울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세상에 억울한 법도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말이 교훈 삼아 돼서 거의 반 자진해서 여기 왔어요. 그 이후로 진짜 싹 바뀌어서 더 이상 이 동이 살 것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2018. 09. 18. 나배려 심층 면담)

이야기 2: 답답하지만 본심을 찾는 곳

평소 서당생활에서 나배려는 서당이나 학교를 벗어난 곳에 가려면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서당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였지만, 가정에서 학교에 다닐 당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신 터에 방과 후 집에 혼자서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보냈던 나배려는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서당에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서당의 환경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본심을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사람은 태어나서 순수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당이라는 공간이 나배려에게는 답답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부모님 떠나서 맡겨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학교 끝나고 애들끼리 한 세 네 명 정도 몰려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놀다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없어서... 그냥 정해진 시간대로 와야 되고 하는 게 좀 그래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서당에서 본심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이라는 게 원래는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맨 처음으로 돌아간

그 정도의 태도가 된 것 같아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이야기 3: 불편한 형, 철없는 동생, 제일 편한 친구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형이나 동생,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장해 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마찰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나배려는 서당 생활에서 친구랑 지내는 것에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 형들과 생활하면 형들이 시키거나 요구하는 대로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 제약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동생들하고 지내니까 철이 없고, 형들하고 지내니까 좀 자유가 깨지고. 친구랑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형들의 생각대로 맞춰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이니깐 하자는 대로 거기에 응해서 해야 되고, 좀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약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나배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발적으로 서당 내에 작은 모임을 결성하였다. 학교에서나 서당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비밀을 나누고 편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잘 지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모임 안에서 자신들만의 고민이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고 위로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힘든 서당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인방 방법대라는 지칭은 1년 이상의 전통이 나오는데, 만약에 고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혼자서 짚짚매는 것보다는 두 세 개의 머리가 합쳐지는 게 더 생각이 많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서당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서당 안에서는 비밀이 없자 라는 걸로 만들어요. (2018. 07. 21. 집단 면담)

이야기 4: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나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배려는 평소 친구들 성격이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이해심이 많아 서당 내에서나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좋다. 학교에서도 잘 따르는 동생들이 많은데 이는 학교 내의 선·후배 관계를 연연해하지 않고 동생들과도 잘 어울리며, 편 가르기를 싫어하는 성격 탓에 소외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도 모두 아울러 지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마다 성격에 개별적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소극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저는 제가 자존감은 낮지는 않은데 제 자신을 올리는 걸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제 자신을 올리는 걸 좀 안 좋아해요. 애들한테 제가 저 잘났다고 올리는

게 좀 미안해요. 그냥 잘 맞춰줘요 애들한테. 누구보다도 애들한테 잘 맞춰줘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살아가는 환경이 저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라고 했는데요. 제 주위에는 제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서당도 그렇고 저희 학교 학생도 그렇고. 좋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응해주야 된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이야기 5: 무단이탈

나배려는 서당의 규칙이나 규율을 어기고 모두가 잠이 든 늦은 시간에 서당 밖으로 몰래 외출한 경험이 있다. 무단이탈과 관련된 나배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는데 당시 여러 서당의 아이들이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모인 터라 술을 마신다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비행행동은 아니었지만 늦은 시간에 모여 떠돌고 돌아다녔던 탓에 학교에 가서도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서당과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나배려는 이후 밤늦게 서당을 이탈하는 일은 삼갔으나, 일정시간이 지난 뒤 이러한 행동은 또다시 반복되었다. 일례로 한밤중 나배려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서당의 선생님들이 나배려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였고, 그 결과 친구의 집에서 놀다 잠이 든 나배려를 찾게 되었다. 이 일로 나배려는 어머니를 비롯한 서당의 선

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배려가 없어져서 서당이 발칵 뒤집혔다.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 배려를 찾으러 다녔는데, 알고 보니 전날 밤 늦은 시각에 몰래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 집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서당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였다. 배려는 무단으로 서당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서당의 어른들에게 혼이 났다. 나는 배려에게 가서 어찌다 밤에 나가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개인방송을 하는데 흥미가 있다고 하였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뭔가 보람 있고 즐겁다고 하면서 사실 밤에 나간 것도 친구랑 게임방송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2018. 09. 05. 현장노트)

이야기 6: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나배려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연구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을 표현할 때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빨리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서당에 온 당시에는 어머니께 미안함이 많아서 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문제없이 서당에서 잘 생활하는 것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라 하였다. 나배려는 아버지에 관해서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삶에만 만족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나배려가 달관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힘든 과정을 겪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체념했

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 때문에 좀...마음에 걸리는 거요. 아무래도 따로 떨어져 지내는데 챙겨줘야 할 건 다 챙겨줘야 되고, 용돈도 부쳐야 될 만큼 부쳐야 되고...돈 많이 벌어야 돼서 미안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분이었는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지금 제 사는 거에 만족하면 됐대 처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3. 강태풍의 이야기

이야기 1: 대안학교를 전전하다.

강태풍은 2남 2녀 중 셋째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새어머니여도 친자녀 못지 않게 강태풍을 정성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정이 깊었다. 서당에서 생활한 지 4년째에 접어드는 강태풍은 유일하게 서당에서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였다.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친구들과 싸움이 잦아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전전하다 서당에 오게 되었다.

제가 언제 한번 숙제를 많이 안 해왔었던 말이에요. 좀 밀렸었는데,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놀이시간을 하지 말래요. 숙제를 다 해도 계속 있었는데, 같이 노는

친구가 숙제를 저하고 비슷한 양만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벌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는 일주일 뒤에 놀라고 하고 저는 계속 반에 있으라고 하고. 그것 말고도 똑같은 형태로 절 더 많이 혼내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엄마가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 면담)

이야기 2: 서당공부가 힘들어요.

청학동 서당에서는 인성·예절 교육과 더불어 사자소학·명심보감과 같은 전통 학습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서당에서의 공부는 인간의 윤리도덕에 입각하여 선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토대로 엮여져 있어 단순히 읽고 학습한다는 것을 벗어난 중요한 교육 과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서예를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다스리고 정서를 순환시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강태풍이 언급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익히고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배움 하나하나에 도덕적 실천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서당에 있잖아요. 이제 놀 수 있겠지 하면서 그랬었는데, 바로 다음에 한자 엄청 많이 시키서 가지고 힘들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 면담)

이야기 3: 시원한 바람, 밖으로의 외출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당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학교 시험이 끝나거나 특별한 날로 인해 학생들이 외출을 희망하는 경우 흔쾌히 허락하여 준다. 강태풍은 친구들과 바람을 쐬러 다녀오는 것이 오아시스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가끔씩 서당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서당이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강태풍은 방학 때 집에 가면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빨리 서당과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하며 항상 정해진 날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서당에 돌아오곤 하였다.

집에 가서도 할 게 없어요. 아는 친구들도 이제 없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놀 애들도 없고,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휴가 갈 때마다 집에만 있고 친구도 없고 핸드폰만 하고 그래요. 그냥 쉬러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너무 심심해서 빨리 서당이라 학교에 오고 싶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 면담)

이야기 4: 소소한 일탈

주말 오전,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보러 숙소에 들렀다. 방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지만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담배 냄새였다. 근원지를 따라가보니 개인 화장실 안에는 피다만 담배꽂초가 흩어져 있었다. 숙소를 사용하던 태풍이와 다른 아이를 불렀다. 나는 혹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냐고 물었다. 두 명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왜 피웠는지를 묻자 아이들은 쭈뼛쭈뼛하더니 대답하였다. 하교하는 길에 호기심에 친구들과 담배를 몇 번 피워보았는데, 친구들이 몇 개비를 주어서 숨겨놨다가 서당에서 생각이 나 몰래 피웠다고 하였다. 태풍이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2019. 11. 16. 현장노트)

강태풍의 일화에서처럼 담배를 구해와 몰래 흡연을 하거나 친구의 옷을 빌려 입는다는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비재하게 생겨나곤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가정에서처럼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데다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보다는 비건전한 방식으로 무료함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야기 5: 안도의 한숨

최근 강태풍의 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강태풍의 안색이 많이 어두웠다. 아버지의 소식에 관해 강태풍은 쓰러지셨단 소리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비는 넘기셔서 다행이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풍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리움의 대상이자 그저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 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곤 하였는데, 새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신 어머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

르는 편이다. 또한 생활비이며 교육비를 비롯하여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을 뒷받침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강태풍: 아버지가 지금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르네요.

연구자: 아버지 쓰러지셨단 이야기 들으니까 어땠어?

강태풍: 놀랐어요. 처음에는 엄청 놀라기만 해서 울었고, 좀 뒤에 아파하실 때는 걱정 됐어요. (2019. 03. 31. 강태풍 대화록)

IV.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구성한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있어 왜곡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망하여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하기,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애착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 등의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1.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

서당 오기 전에는 진짜로 공부 잘해서 칭찬받을 때 빼고는 행복한 점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엄마는 없고, 새엄마는 잘 안 해주는데 형한테는 잘해주고, 아빠도 뭐라고만 하고, 친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서당에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행복했어요. 같이 지내니까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면담)

그 사건 이후로는 진짜 싹 바뀌어서 그냥 내가 더 이상 이 동네가 살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휴가가면 개들이랑 30~40% 확률로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면 그냥 제 갈 길 가요. 저는 거의 99% 여기 온 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2019.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방학이 시작되고 집으로 휴가를 가는 태풍이를 공항에 데려다주었다. 차에서 태풍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태풍이에게 처음 서당에 비행기를 타고 온 날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으니 방학캠프로 왔을 때는 기대되고 걱정됐었는데, 장기생으로 다시 서당에 올 때는 서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아니까 마음 편하게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2019. 07. 29. 현장 노트)

연구참여자인 김선두, 나배려, 강태풍은 자발적으로 서당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가정에서 늘 외로웠던 김선두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옮겨 다녔던 강태풍은 부모님의 권유로 스스로 서당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나배려의 경우 도시에서 어울리던 친구들과 떨어져 바르게 성장하고자 본인의 의지로 서당에 오게 되었다.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와 관련하여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서당에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에서의 적응과정을 통해 사회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다(이지영, 2003; Rice & Dolgin, 2005).

2.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학교를 마치고 서당에 돌아왔더니 훈사님이 오셨다. 나는 그 순간 훈사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훈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훈사님은 역시 착하시다. 나는 부원장님과 사모님, 훈장님도 다 좋지만 훈사님이 아주 좋다. 여기서 갈 때까지 훈사님을 계속 꼭 보고 싶다. 나는 훈사님께 아주 감사하다. (2013. 10. 28. 김선두의 일기)

누나가 훈사님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도 많이 해주셔서 좋고,

나중에 힘들면 서당 어른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할 거예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면담)

서당에 있는 선생님들은 딴 걸 다 떠나서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나와요.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2018. 09. 13. 나배려)

서당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서당교육에 관해 지루함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김선두가 사람관계와 효도에 관해 생각이 변화하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경서의 학습이나 훈장님을 비롯한 어른들과의 일상생활을 통해 효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스스로 체득하여가는 과정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당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서당의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에 관해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고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서당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와 상실감을 보상받았으며, 이처럼 긍정적인 애착관계는 서당이나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력을 높이고 정

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ird et al., 1999; Howes & Hamilton, 1992).

3.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

서당에 올라오다가 선두랑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람 자체를 못 때려서 맞고만 있었는데, 선두가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여서 못 때린다고!!!” 하고 성질내고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다음날 되니까 자동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화해했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형들은 좋아요. 그냥 친해요. 처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는 아는 사람이 형들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든든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에 친구도 있고 반애들이랑 많이 있으니까 형들 생각은 별로 안해요. (2018. 07. 21. 집단면담)

연구자: 너희 세 명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야?

김선두: 평생 친구요.

나배려: 존재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데...존재라기보다는 거의 인생의 동반자 쯤 되지 않을까요? (2018. 07. 21. 집단면담)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에서 서당의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

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에 대해 지각하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대부분인 학교환경에서 서당생활은 학교생활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므로 학생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공유하는 삶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홀로 서당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해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비교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마음이 잘 맞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기기도 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양보와 배려를 배우기도 하며 다툼과 화해를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당과 학교생활에서의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최성열, 2001; Gandhi et al., 2019; Schwartz, 2001).

4.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집에 있을 때는 뭔가 좀 편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다른 분들께서 다 해주시고 하는데... 일단 서당이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있으니까 저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당에서 제약되어 있잖아

요. 집이면 약속도 잡을 수 있고 하는데... 학교 끝나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2018. 07. 21. 나베려 심층면담)

서당 애들 보면 그냥 한심해요. 말 안 들어서 서당에 왔는데, 여기서도 말 안 들으면 더 오래 있어야 될 게 뻔하잖아요. 자기 이득 챙기려면 말 잘 듣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나가서 놀고 싶겠죠. 지루하게 서당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살겠죠. 여기 있으니까 제약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말 안 들으면 더 험난하고 안 좋아지겠죠? (2018. 09. 13. 나베려 심층면담)

다른 서당에 있다가 집으로 전학 간 애들이랑 한번 영상통화를 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친했던 엔데. 영상통화를 딱 했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양아치새끼가. 이랬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면담)

서당이라는 통제된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또래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을 무단으로 이탈한다든지, 서당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과 관련된 문제 행동들을 종종 일으키곤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

고 있으며,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서당의 통제된 환경이 장기적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학동 서당에서 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서당에서 생활하며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혁준, 2010; 문용린, 1996).

5.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

엄마는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피곤하고 힘들대요. 누나랑 저 대안학교 보내잖아요. 돈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엄마 아빠 일해 가지고 미안할 때도 있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면담)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다보니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읽는데, 책에 수록되어있는 걸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는 걸 보면 이제 자식도 커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되어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하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어머니가 선택하신 게 이 서당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 09. 13. 나베려 심층면담)

누나랑 형 보면 아빠 속 썩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엄마한테 데려다줄 때 누나 형 도움이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친엄마는 많이 컸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계속 물어보고 용돈도 주고 그래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당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서당에 오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서당에서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가족들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해 늘 관심을 기울였으며, 혹여나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가진 개별적인 가정 환경이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서당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주, 황기아, 2007; Emery & O'Leary, 1984; Fincham et al., 199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에 오게 된 경위가 학업 증진보다는 참된 인간상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서당에서의 인성예절 교육을 통해 연구참여자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하

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비롯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쓰러워요. 저는 그렇게 안 당하잖아요. 그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덩치 작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니까 저라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6.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

제가 보는 저는 오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보고 성격이 세다고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데, 동생들이 알고 만만하게 보면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애들이 반장 말 안 들어서 쌤들이 누구한테 시켜야 말 들냐고 하니까 애들이 ‘태풍이요!’라고 막 그랬어요. (2019. 03. 31. 강태풍 심층면담)

제가 왜 생각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부터 가정사 쪽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 가르침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아빠가 좀 심하게 뭐라 했던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울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때부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가 딱 전환점인 것 같아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면담)

사람들 맞춰주고 할 때 힘든 게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따로 떨어진 애들을 맞춰주는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데,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참여자들의 자기이해는 서당생활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세로서,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긍정과 자기수용의 과정을 거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있었다(Oyserman, Elmore, & Smith, 2012). 또한, 참여자들은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지나간 과거를 되살펴보고 또래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이해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자신과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서당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강태풍은 불안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서당에 온 것이 행복했다고 회상하였고, 나배려는 자기반성을 통해 생각이 많이 변화하였으며, 강태풍은 불안감에 눈을 비비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던 행동들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당에서 생활했으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삶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가정에서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전부터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쪽으로 해보려고요. 원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프로그래밍이나 정보 기술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도 많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로 하려고요. (2018. 11. 10. 나배려와의 대화록)

선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한 상태인데, 내신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고 선두에게 물으니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2019. 01. 05. 현장노트)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로 했는데, 공부를 못해서 다른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그 학교 나오면 80%인가? 성공한다고 해서 간다고 했어요. (2019. 03. 31. 강태풍 대화록)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향후 진로설정에 관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김선두는 좋은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나배려와 강태풍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해 나가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에 대해 서당이라는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쉬어가는 휴식처로서 기능하였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겪었던 기존의 삶은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견뎌 나가야 했지만, 서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었으며,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맹영임, 2001; 박완성, 2002; Meijers, 1998; Rogers, Creed, & Glendon, 2008).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임현희, 조한익, 2018) 연구참여자들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중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삶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17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서당에서의 교육경험이 12개월 이상이며, 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참여자 3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이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틈틈이 대화한 것을 기록한 대화록과 심층면담 후 연구자가 작성한 녹취록, 연구참여자의 일기와 연구일지 그리고 현장텍스트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야기나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을 염두에 두고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적 실제적 지식(Clandinin & Connelly, 1984, 1985)에서 이들이 살아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에 중점을 두고 탐구하였다(Clandinin et al., 2006).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들이 살아낸 삶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된 삶의 경험은 최종 연구 텍스트로 구성할 때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서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연구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시키는 일과 개인의 흥미를 더 큰 사회적 맥락 및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정당성과 관련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정당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공간 안에서 머무르며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청학동 서당에서 경험하였던 연구자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서당에

서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많은 일상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삶을 관계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서당에서 겪었을 다양한 감정들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Clandinin, 2013). 연구를 진행하기 전 과거의 연구자는 학생들을 이해하기보다 어른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려 하였지만,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의 전 과정을 지나면서 폭넓은 시각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본 연구를 통해 서당에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친구를 비롯하여 자신과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있는 타인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이 걸어온 삶과 걸어갈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실제적 정당성 측면과 관련하여 청학동 서당은 인성·예절교육을 중심으로 서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을 동시에 병행하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 학습과 돌봄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 유연성이 있지만, 대안적 가치를 통해 양성된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대안 교육의 철학적 가치를 내포한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기회와 여건이 취약하다. 청학동 서당 역시 한문의 경전을 비롯해 전통적인 서당교육에 현대의 교육과정을

더하여 다양한 과목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지만, 교육의 형태가 과거의 서당교육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체득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당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한 지 3년 이상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당생활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에 서당생활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예의범절이 어느 정도 체득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당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청소년, 그리고 관련 부모들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를 청학동에 맡기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청학동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부모의 마음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잘 돌봐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청학동 서당에서 머느리로 살면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 주지만 이렇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텅 빈 마음과 상처들을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청학동 서당에 오는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 내의 문제나 학교부적응, 비행문제 등을 안고 있다.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의 부정적 여파로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거나 각종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돌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일탈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이는 가정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소통

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려서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던 일탈 행동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고 종래에는 더 큰 비행행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편부모나 의붓 부모와 같은 구조적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폭력행동을 비롯한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비롯하여,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및 사회적 지지의 결핍, 가족의 부도덕한 사고 및 행동,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요인이 청소년 비행의 일탈행동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남순, 2001; Garnefski & Diekstra, 1997). 또한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 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정은 사회를 형성하는 1차 집단으로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은 기능적인 결함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며,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선택권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가며 삶을 계속 살아나간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나 서당에 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내고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삶의 경험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심리적 경험과 사회적 변화를 겪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면담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초기 서당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 아파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연구자도 자기 성찰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청학동 서당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연구들이 있었지만(공환, 2005;곽재용, 2010)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삶의 경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청학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를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와 삶을 함께해 온 연구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인 격려와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경험의 과정을 탐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청학동 서당에서 공립 중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생활도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청학동 서당에서는 중학생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도 함께 생활한다. 초등학생들은 서당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중학생과는 또 다른 경험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공 환 (2005). 청학동 서당교육의 실태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민희 (2010). 서당식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문 교육 교수-학습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재용 (2010). 청학동 서당 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남권문화, 20, 407-492.
- 김남순 (2001). 청소년비행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복지 실천방안.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모선 (2018). 초등학생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2015).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태환 (2004). 전통 서당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혁준 (2010). 기숙생활 고등학생의 갈등관리 양식과 스트레스 유형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 (2001). 가족 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6). 신세대의 이해. 서울: 삼성복지재단.
- 박민주, 황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박완성 (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3-123.
- 서석훈 (2009). 서당과 현대 초등학교 인성교육 비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신문 (2019. 11. 25).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무너지는 계층 사다리: 확산되는 수저 계급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에서 2019년 11월 30일 인출
- 연합뉴스 (2015. 11. 17). 수저 계급론 점점 더 설득력 얻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에서 2019년 11월 30일 인출
- 원준수 (2012). 서당교육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10).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 이지영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감과 의사 결정유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희, 조한익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5(2), 115-143.
- 정수령 (2002). 서당교육방법을 활용한 도덕교육 교수-학습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찬호 (2017). 紫巖日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서당의 교육.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열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일보 (2019. 07. 06). 위탁가정은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울타리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60014356480>에서 2019년 11월 30일 인출.
- Boykin, A., & Schoenhofer, S. O. (1991). Story as link between nursing practice, ontology, and epistemology.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3(4), 245-248.
- Clandinin, D. J. (2013).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85).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nd the modes of knowing: Relevance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E. Eisner (Ed), *Learning and teaching the ways of knowing* (pp. 174-19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84).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t Bay Street School: Ritual, personal philosophy and image. In R. Halkes & J. K. Olson (Eds.), *Teacher thinking: A new perspective on persisting problems in education* (pp. 134-148). Lisse, The Netherlands: Swets Publishing Servic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ndinin, D. J., Huber, J., Huber, M., Murphy, M. S., Murray-Orr, A., Pearce, M., & Steeves, P. (2006). *Composing diverse identities: Narrative inquiries into the interwoven lives of children and teachers*. New York: Routledge.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y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0). Narrative understandings of teacher knowledge. *Journal of curriculum and supervision*, 15(4), 315-331.
- Crystal, D. D., Chen, C., Fuligni, A. J., Stevenson, H. W., Hsu, C. C., Ko, H. J., Kitamura, S., & Kimura, S. (1994).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 cultural study of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5(3), 738-753.
- Denzin, N. K., & Lincoln, Y.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Emery, R. F.,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11-420.
- Fincham, F. D., Crych, J. H., & Osborne, L. N.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28-140.
- Gandhi, A., Luyckx, K., Molenberghi, G., Baetnes, I., Goossen, L., Maitra, S., & Claes, L. (2019). Maternal and peer attachment, identity form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 longitudinal mediation stud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3(7), 1-11.
- Garnefski, N., & Dickstra, R. F. (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20(2), 201-208.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4), 859-866.
- Laird, R. D., Petti,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4), 413-437.
-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0(3), 191-207.
- Oyserman, D., Elmore, K., & Smith, G. (2012). Self, self-concept, and identity. J. Tangney and M. Leary (Eds.), *The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9-104). New York: Guilford Pres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Rice, F. P., & Dolgin, K. G. (2005).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Auckland, New Zealand: Pearson.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Schwartz, S. J. (2001). The evolution of Eriksonian and, neo-Eriksonian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1), 7-58.

1 차원고접수 : 2020. 01. 08.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8.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6.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Cheonghak-dong Seodang

Kim, Yu Na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students living in Cheonghak-dong Seodang through a narrative inquir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e conducted this study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conceptualized by Connelly and Clandinin (1990, 2000). We selected three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Cheonghak-dong Seodang who were believed to be able to convey their experiences vividly through research puzzles.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transcripts and research journals as well as transcripts from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data with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in the mind. Through the narratives released by the participants in middle school in Cheonghak-dong Seodang, they starting by living alone, opening up to the new Seodang learning and to the adults who were teaching them. They experienced friendships in diverse relationships, decreasing deviations, reflecting on their families, and continuing with their preparation and consideration for a good future. Based on this, we deeply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in the discussion and suggested personal legitimacy, actual legitimacy, and social legitimacy in relation to the study.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lives of the participants and providing bette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environments for them.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liv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Cheonghak-dong Seodang and raises social consideration and awareness of them.

Keywords: cheonghak-dong seodang, experience of life, legitimacy, narrative inquiry